

# 情報의 適時性과 책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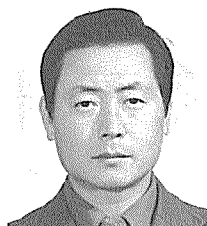
요즘 흔히 컴퓨터를 만능의 기계 또는 마술의 기계라고 한다. 이 만능의 기계는 스스로가 모든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인간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들을 프로그래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 프로그래머들은 때때로 技巧的인 면에서 희비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

프로그래머들은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뜻대로 실행될 경우에는 자신이 설계하고 창작하였다는 순수한 기쁨과 더불어 첨단과학분야에 종사한다는 자부심마저 갖게 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복잡하고도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때로는 微粒子和같은 아주 작은 문제와의 싸움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으로부터 약10년전이라고 기억된다. 직원중 20대 후반의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있었는데 아리따운 여인과 교제중이었다. 그는 예외없이 그날도 퇴근후 장래 계획에 대하여 두 사람이 意見을 나누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중으로 급한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시가 그에게 떨어졌다. 그는 과제를 받아본 후 이 정도라면 단 몇시간 이내에 완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

김동희  
동양시스템산업(주) 대표이사



각하고 자신있게 착수하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컴퓨터는 자기 뜻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나 잘못된 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조해지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약속했던 애인은 기다리다 지쳐 성화가 대단하였다. 그는 心理적으로 갈등을 느끼면서도 밤을 새워 그일을 완성하였다.

다음날 그의 한마디는 「저 장가갈 수 있게 해 주세요」라는 호소였다. 이는 단지 그 한사람만의 아름다운 책임 의식을 나타낸 것만은 아니며 電算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명심하여야할 일이다.

특히 종래의 물질적 資源에 비해 보다 큰 부가가치 창조 의 원천이 되는 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정보의 적시성, 정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들의 책임의식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